01 교회소식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주년 기념성회 시 말씀과 기도, 찬양과 치료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02 생명의 말씀_ 지혜 시리즈 1

금보다 귀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03 기획특집

깨뜨려야 할 육신의 생각들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깨뜨려야 할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04 간 증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는 멕시코 기독의사 푸엔떼스 박사와 주님 은혜로 건강해진 김향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07호 2013년 11월 1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주년 기념성회

TBN 러시아 방송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영적인 믿음 더해

유대교의 나라에서 개최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 크리스탈포럼에서 주최하는 기념성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이수진 목사(사진 1)를 강사로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에서 4주년 기념성회(사진 3)가 열려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간증했다(사진 2, 5).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의 공연(사진 4, 6)과 회중찬양(사진 7)으로 감동과 은혜가 넘쳤다. 목회자 세미나와 개교회 집회도 열려 큰 변화가 기대된다(사진 8, 9).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2009년 9월, 복음의 발상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베풀며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했다. 이후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www.acf.org.il)에서는 매년 우리 교회 선교팀을 초청해 기념성회를 열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선교는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를 기반으로 4주년 기념성회뿐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가 개최돼 성결의 복음을 열망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10월 26일 저녁, 하이파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이수진 목사(우리 교회 교역자 회장)를 강사로 4주년 기념성회가 열렸다. 이스라엘 전역은 물론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불가리아,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참석했고,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유럽, 아시아 전역에 3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한주경 찬양선교사와 파워워십팀의 히브리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 찬양과 화려한 무용·워십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환상적인 무용과 충만한 찬양에 은혜 받았다."며 힘찬 박수로 환호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회중찬양 시간에는 참석자 모두가 하나 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강사 이수진 목사는 '빛 가운데 행할 때의 축복'이란 주제로 축복받는 비결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증거했다. 특히 7년간 병상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단번에 치료받은 이재록 목사의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하기도 했다.

설교를 마친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환자기도를 해 주자 척추, 무릎, 다리 통증이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되며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각종 암이 치료됐다고 많은 사람이 간증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하이파 생명수교회 유리 칼믜코프 목사는 "러시아에 있는 남동생은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혼수상태에 있었다. 의사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동생을 대신해 강사님에게 기도받은 후, 놀랍게도 동생은 의식을 되찾고 일어나 걸었을 뿐 아니라 음식도 섭취하는 등 급속히 호전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뻐하며 간증했다.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4주년 기념성회에 동참한 러시아, 에스토니아, 독일, 스위스, 영국,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치료와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4일과 25일에는 이스라엘 근교 키부츠 농장 야드 쉐모나 세미나 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이수진 목사는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성결돼야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뿐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기록하며 경청했고, 이어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결단했다.

러시아에 800개 교회 소속 교단의 총회장 세르게이 미헤예프 목사는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밖에도 26일 오전에는 하이파 영광의 왕교회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수진 목사는 열 처녀 비유 말씀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참된 신부의 자격에 대해 설명했고, 성도들은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다니엘 마짜아쉬 담임목사는 "메시지가 참으로 깊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며 교회 부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금보다 귀한 지혜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14~15)

사람들은 저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지식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재물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귀히 여기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참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줄 수는 없지만 지혜는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학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지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합니다.

1.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귀중성

지혜란 쌓은 지식이 활용되는 방법론과 같습니다. 명철이 있어 앞길이 환히 보인다 해도 지혜가 없다면 명철의 가치가 발휘될 수 없습니다. 명철은 배움을 통해서도 깨우칠 수 있지만 지혜는 마음의 그릇을 갖춰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며 물 흐르듯 일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로도 사랑과 축복을 받는 반면, 미련한 사람은 말 한마디로 찾아온 기회조차 잃고 곤란을 당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 열매가 적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터득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고, 은혜받을 기회를 잘 포착해 놓치지 않으며 은혜의 기회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응답받는 것도, 열매 내고 축복받는 것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받은 솔로몬

'지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그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제물로 가져온 짐승을 태워 그 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제사법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예배를 포함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예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대하 1:7)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넘치게 주셨습니다(대하 1:11~12).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남방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을 싣고 지혜를 들으러 오기도 했지요. 그녀는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유명합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와서 그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기가 죽자 밤에 몰래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자기 곁에 남의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여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두 여인은 옥신각신하다 솔로몬에게 재판을 청하러 옵니다. 이에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 아기를 둘로 나눠 두 여인에게 반쪽씩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했지요. 반면 다른 여인은 아기를 반쪽으로 나누라는 왕의 판결에 만족해합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애원하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며 그녀에게 아기를 돌려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가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 주고, 현명한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처신해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일행들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근방의 부호인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나발의 가축들을 지켜 준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나발은 자신을 낮추어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굴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다윗은 무장한 사백 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경황이 없는 중에도 급히 떡과 포도주와 각종 음식을 준비해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일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그의 발에 엎드려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다윗을 높여 줍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자신을 보고 용서해 달라며 진실하게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좋은 점을 칭찬하며 마음을 풀어 주지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은근히 깨우쳐 주기까지 합니다.

진심어린 말로 용서를 비는 아비가일의 모습에 다윗은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삼상 25:32~33) 하며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후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왕처럼 잔치를 벌여놓고 몹시 취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말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튿날 남편이 술이 깬 뒤에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칫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놀란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졌고 열흘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언행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죽임당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에 따라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사소한 일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약 3:17~18).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 하나님 자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깨뜨려야 할 육신의 생각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힌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바꾸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자기 한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의와 틀까지 만든 경우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의'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틀'이란 무엇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히 굳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와 틀 가운데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같은 기도와 함께 진리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깨뜨려야 할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 기(氣)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기질적인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음으로 인해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 났기에 대체로 조용하고, 성내거나 다퉈 화평을 깨는 일은 보기 힘들다. 하지만 기관의 머리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끌어 주는 분야가 취약하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과 걸리는 일도 없고 항상 상대를 선하게 바라본다는 생각 까닭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나 열심이 있는 반면 섬김이 부족하고, 상대를 더 낫게 여기고 편안하게 해 주는 분야가 취약하다. 물러나야 할 때도 '영을 사모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물러서지 않음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

2 성장하면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살아온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 가다가도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비슷한 처지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으면, 자신보다 앞서 간다는 느낌에 초조해하거나 낙심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범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해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한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의와 틀 가운데 상대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 그러니 상대를 답답해하며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선다.

3 미세한 비진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마음을 진리로 많이 일궜다 해도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기도 한다. 가령 조언이나 권면을 들을 때 수긍하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친다. 0.1퍼센트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99.9퍼센트가 선한 마음이기에, 또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친 것이기에 덮어 버리므로 미세한 비진리를 벗을 수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4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

마음 밭을 개간하는 데 소홀하면서도 자신은 늘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막상 어떤 연단이 오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 마음 깊은 곳까지 할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소유해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5 육체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통틀어 '육체의 결여'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잘 받지 못하면 성장해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집중해 듣지 못하고, 대화할 때에도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윗사람의 지시사항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명심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한다. 하나님 뜻을 거스를 마음은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지 못하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성장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교감 능력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표현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 매사에 주변 사람의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 자기 경험 안에서 '이것이 좋다.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6 진리의 틀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생각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이것이 옳다. 선하다.' 하는 생각을 단단하게 굳혔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깨닫지를 못한다. 그 틀에서 비롯된 생각이 들어맞는 상황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자가 양 떼를 용서하고 감싸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틀이 만들어졌다면 용서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데도 선의 틀에서 나온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의사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 대단합니다”

다니엘 푸엔떼스 아꼬스따
산부인과 전문의, WCDN 멕시코 디렉터

1994년, 저는 멕시코 주립대학 의대를 입학한 후 시간이 나면 기도모임을 갖고, 의대생을 위한 콘퍼런스를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의사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위해 항상 기도해 왔지요. 현재 멕시코 톨루카 시에 있는 모니까 쁘레뗄리니 산부인과 병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두세 명의 의사들과 함께 육체의 치료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독의사들의 모임의 필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던 중 ‘아멕’(AMEC, 멕시코 기독의사회)을 결성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초교파적으로 기독의사들이 주축이 돼 멕시코 전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의술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멕을 결성한 후 저는 전 세계에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사한 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찾아 배우고자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WCDN 홈페이지(www.wcdn.org)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으로 치유된 사례들을 의학 자료와 함께 증명하는 사역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이와 같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당장 WCDN에 연락해야겠어요. 본부가 어디지? 한국? 오, 하나님! 너무 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세계 곳곳에 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지부에 연락해 그곳 디렉터 알만도 박사님과 연결이 됐지요. 그분을 통해 2012년에는 한국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출장팀을 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WCDN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아 감격의 눈물이 흘렀지요. 그토록 열망했던 기독의사로서의 비전이 이뤄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WCDN 설립자이며 이사장이신 이재록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스페인어 홈페이지(www.manmin.org/foreign/main_sp.asp)를 통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요. 그 안에는 영혼에 울림을 주는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십자가의 도』 스페인어 판을 읽었는데, 인간경작의 섭리를 깨우치며 하나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지요.

하나님 권능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 다니엘(7세)은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 부위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멕시코를 방문한 한국 WCDN 출장팀이 권능의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바르거나 마시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해 줬지요. 이에 아들에게 무안단물을 발라 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주간에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친구인 성형외과 전문의 빠스뜨라나 피게로아 박사는 이재록 목사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혼수상태에 빠진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한 페르난도 목사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 없었는데, 엔라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치료받았지요.

지난 6월에는 WCDN 주최 제10회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멕시코 톨루카 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저는 조직위원장으로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저희 나라에서 콘퍼런스가 열린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콘퍼런스에는 24개국에서 온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했으며, 불치병 환자가 기도로 완치된 7가지 사례가 의학 자료와 함께 발표됐지요. 치유의 의학적 증거들과 영혼을 소성케 하는 특강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찬양과 공연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콘퍼런스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남미 나라들을 방문해 WCDN 지부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 역사를 중점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해 의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WCDN 사역을 이루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알레르기성 후두염과 비염 증세가 말끔이 사라졌어요”

김향 집사 (중국 1교구)

저는 4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이모님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직장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과민성 알레르기가 원인 모르게 나타나서 온몸 또는 오관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체중도 늘어나고 저혈압까지 와서 늘 넘어질 정도였지요.

특히 목 안이 항상 붓고 열이 났으며, 입천장에는 두드러기가 돋아 몹시 가려웠습니다. 늘상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심했지요. 알레르기성 후두염과 비염 증세였습니다. 갖가지 약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낫지 않았지요.

2011년 말, 예배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 주님의 사랑이 깨우쳐지면서 지난날의 잘못들이 떠올라 통회자복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시간이 되는 대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를 했지요.

얼마 후 중국에 거주하던 딸이 숙명여대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딸과 함께 생활을 하니 삶이 안정돼 갔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됐지요. 주일성수를 온전히 하고 믿음으로 복용하던 약도 끊었습니 다.

지난 8월 5일, 만민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목 안이 시원해지면서 입천장이 가렵지 않았지요. 바로 알레르기성 후두염과 비염 증세가 말끔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운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홍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월피동508-1 ☎031)485-9143,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